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오동진
영화평론가



폭동은, 마치 폭풍처럼 전조(前兆) 현상이 있다. 영화적으로 볼 때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같은 작품이 그렇다. 요즘 극장가에서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 꽤나 입소문이 난 ‘씨너스 : 죄인들’의 감독 라이언 쿨러의 2014년 작품이다. 이 영화는 선댄스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으며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소개됐다. 라이언 쿨러는 단박에 스타가 됐고 이후 ‘블랙팬서’ 같은 블랙스플로이테이션(흑인 감독, 흑인 주연, 흑인 서사를 다룬 작품을 통칭한다) 영화의 대표 주자가 됐다.

오스카 그랜트는 샌프란시스코 오글랜드의 프루트베일이란 지하철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끝에 오발 사고로 사망한 흑인 청년의 이름이다. 2009년의 일이었다. 벼락 오바마 집권 초기에 일어난 일로 결국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는 폭동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다.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오히려 미온적이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어쨌든 오바마 시절은 오바마 시절이었다. 영화는 오스카가 죽기 직전의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한 내용으로, 감독 라이언 쿨러는 유색 인종 누구에게나 오스카 같은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실감케 했다. 명백히 전조의 영화였다.

늘상 그렇지만 시위는 소요로 이어지고 소요는 곧 폭동이 된다. 소요까지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지만 폭동까지 오면 이미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요까지는 지식인들, 액티비스트들이 주도하지만 폭동에 이르면 자제력을 잃은 롬펜들의 약탈, 린치가 이어진다. 오스카 그랜트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해, 그러니까 2014년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옆 작은 도시 퍼거슨에서 소요 사태가 터졌다. 여기서부터 폭동의 전조가 감지됐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 흑인 소년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6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했다. 백인 경찰관과의 몸싸움이 발단이었으며 서로 감정이 격양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

퍼거슨 소요 때 흑인들 ‘핸즈 업’ 외쳐
공권력의 남용은 공권력이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퍼거슨의 소요에는 화염병이 등장했고 약탈 행위가 대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2년 LA 폭동 이후 잠잠했던 일이었다. 오바마는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주방위군의 과잉 진압이 오히려 보스턴에서 LA에 이르는 전국 시위의 발단이 됐다. 퍼거슨 폭동 사태를 담은, 궁극적으로는 흑인과 유색인 인권 운동의 전 과정을 담은 영화가 바로 사바 폴라얀 감독의 2017년 다큐멘터리 ‘후즈 스트리트즈?(Whose Streets?)’다. 국내에서는 2019년, 지금은 없어진 ‘레지스탕스 영화제’를 통해 상영됐다. 흑인의 거리는 흑인에게, 민중의 거리는 민중에게. 흑인과 민중의 정치적 주체성을 세우려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후즈 스트리트즈?’는 한 조그만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전국 시위의 도화선이 되는가를 목도하게 만든다. 퍼거슨 소요 사태는 백인들의 맞불 시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시위는 일명 ‘바이블 벨트’(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많은 곳. 루이지애나-플로리다-웨스트버지니아-뉴멕시코 등이 해당 지역으로 공화당 강세지역이다) 내 백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모멘텀이 됐다.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백과 흑, 공화와 민주, 차별과 반차별, 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으로 양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4년 퍼거슨 폭동 사태이며, 영화 ‘후즈 스트리트즈?’의 배경이 된 때부터다.

시위가 조직화 되는 수단은 슬로건이다. 오바마



LA 폭동 사태의 경고음처럼 여겨지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2024년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중앙포토〉

시위소요폭동, 전조의 영화들

‘오스카 그랜트...’ ‘후즈 스트리트즈?’

공권력에 스러진 흑인, 인권 다뤄

폭동의 내면 뿌리 캐 ‘디트로이트’

흑백 충돌 경고한 ‘뚝바로 살아라’

‘시빌 워...’ 처럼 내전 확대 우려도

정치력 복원·정상화 땀 폭동 줄어

이후 아이러니하게 더욱 불붙은 ‘신 흑인 인권 운동’은 일종의 슬로건 정치학을 보여주는 시위들이었다. 퍼거슨 소요 때 흑인들은 ‘핸즈 업’을 소리치기 시작했다. 핸즈 업은 경찰이 총을 겨누며 소리치는 말(Hands Up, Don’t Shoot)에서 따온 것이다. 이런 슬로건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온 것이 바로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이다. 이 운동은 2020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됐다. 조지 플로이드는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목이 눌러 질식사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별도의 전조 현상이 모여 해당 사건이 드디어 본질적인 사태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됐다. 마치 장작 하나 하나가 쌓여 대형 불길에 되듯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오스카 그랜트와 마이클 브라운을 거치면서 곧바로 전국 소요와 폭동으로 번졌다. 사건이 벌어진 지 5일 만에 시위 사태는 미 전역의 주 대부분(초기에는 16개 주)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이다.

모든 시위는 사태가 진정된 후 한참이 지나서 정



1



2

1 스파이크 리 감독의 ‘뚝바로 살아라’(1989). 2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디트로이트’(2017).

치사회학적 분석이 뒷받침된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의 밑바탕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팔라진 경제적 양극화, 특히 흑인 빈곤층의 심화, 여기에 일상화된 인종차별 케이스들이 소요와 폭동 사태의 바탕이 됐다고 분석됐다. 따라서 폭동을 막는 것은 주방위군같은 물리력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폭동과 정치는 반비례한다. 정치력이 복원

되고 정상화되면 폭동이 줄어든다. 폭동의 정당함 명분이 정치성을 획득하면 사회와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였다. 정치와 사회의 개선은 오히려 역행했다.

폭동 어떻게 막느냐보다 본질 깨물어야
일반 소요, 단순 시위가 견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어이없는 점증법의 사회적 서사

를 보여 준 영화가 캐서린 비글로우의 수작 ‘디트로이트’(국내 개봉 2018년)이다. 비글로우의 카메라는 가까운 과거로 타임 슬립한다. 1968년 디트로이트가 배경이었으며 영화가 만들어졌던 2017년에는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하면서(자동차 산업이 붕괴하자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주류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내러티브가 트럼프 일방주의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디트로이트 외곽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그랜 토리노’에 잘 그려져 있다) 빈곤층이 극대화 되고 흑인 갱단 등의 약탈 사건 등으로 치안이 극히 위험해졌던 때다.

비글로우 감독은 ‘폭동의 내면’, 그 뿌리를 캐 나간다. 베트남 참전 흑인 군인들의 무면허 술집 파티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이 결국 12번가 폭동 사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개입되는데 백인 경찰 둘, 백인 여성 둘, 흑인 밴드 멤버들이다. 이들은 폭동을 피해 한 모텔로 피신하는데 단순한 총기 오발 사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백인 경찰들의 오해로 고문·감금·학살이 이어진다. 밖에서 벌어지는 폭동 사태가 각 개인의 폭력적 본성을 어떻게 일깨워 주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해 준다. 영화 ‘디트로이트’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지금 다시 재조명돼야 할 작품으로 꼽힌다. 일상화된 폭동과 폭력의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화는 끊임없이 폭동의 정치적 양극화, 그 소모적이고 끔찍한 진영 싸움의 문제에 경고음을 보내 왔다. 이성이 상실되고 권력과 자본에의 욕망만이 앞세워지는 사회가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달궈지는가를 보여 주려 애써 왔다. 흑인 감독을 대표하는 스파이크 리가 1989년에 만든 ‘뚝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는 어쩌면 1992년의 로드니 킹 사건 직후 벌어진 LA 폭동 사태에 경고를 보낸 묵시록적 예언의 영화였다. 한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불이 나고 이 화재를 진압하다 흑백 충돌이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영화도 결국 단순 사건이 시위와 소요, 폭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만약 이 영화의 경고음을 미국 주류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LA 폭동 사태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고음 중에 가장 격렬한 영화는 본지 ‘시빌 워: 분열의 시대’다. 공포스럽게도 지금의 미국 사회는 영화의 내용을 향해 가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노 킹(NO KING)’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생일에 맞춰 군 열병식이 거행되고 일부 백인들이 생일 축하를 부르는 동안 미 50개 주 전역에서는 ‘우리에게 왕은 없다’ 시위가 벌어졌다. 현재 이민자 탄압 문제가 결합한 LA시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문제의 불씨를 촛불에서 장작불로 키우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것이 만약 군 부대급으로 조직되면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마냥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풍전등화다. 폭동은 어떻게 막느냐가 능사가 아니다. 폭동의 원인과 본질을 깨물는 것이 현자의 태도다. 예방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성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앞장서야 한다. 감독 스파이크 리의 얘기가 맞다. 두 더 콰이 썽! 뚝바로 살아야 한다. 실존의 문제이다. 그건 어느 나라, 어떤 정부이건 마찬가지이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